

전북대, 美 CSIS서 방산협력 기반 다져

워싱턴 D.C. CSIS서 열린 컨퍼런스 참여 국방·우주·AI 분야 글로벌 협력 가속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25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2025 DAPA-CSIS Conference)'에 국내 대학 최초로 참여하며 글로벌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첨단기술 및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한·미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석조건 방위사업청장,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前 인도태평양사령관), 마이클 바카로 미국무부 차관보 등 한·미 양국의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오봉 총장은 개회 축사를 맡았다. 양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무기 구매와 기술 이전을 넘어 공동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확장되고 있다"며 "전북대학교

는 첨단방위산업학과를 중심으로 드론, 우주, 사이버, 피지컬 AI 등 신흥 분야에서 인재를 길러내며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방산 인재 양성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방위사업청과 CSIS, 그리고 세계 유수 대학들과 함께 국제적 연구 협력과 인재 양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초연설, 공개·비공개 세션, 만찬 등이 이어지며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전북대에서는 양 총장 외에도 강은호 교수(전 방위사업청장), 장원준 교수가 패넬로 참여해 학문적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을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전북대가 이번 CSIS 무대에 오른 것은 국내 대학 중 최초라는 점에서 의



지난 17일(현지시간) '첨단기술 및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한·미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2025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2025 DAPA-CSIS Conference)'가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가 크다. 전북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전략 교류를 본격화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참여는 단순한 학문 교류를 넘어 한국의 방산·과학기술 역량을 국제무대에서 제도화하

고, 한·미 동맹의 기술 협력 지평을 넓히는 실질적 성과"라며 "방위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북대학교가 국제사회의 협력하며 미래 방산·우주·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일하며 배우니 세상이 바뀝니다'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승진·수상 등 성공 성과

전주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권수태)의 재직자·성인학습자 특화 학부인 미네르바학부가 지역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신의 직무와 배움을 연결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연이어 창출하며 일과 학습의 선순환 모델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와중에도, 현장 경험과 전공 지식이 시너지를 내며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졸업생들이 학위 취득 후 승진과 이직에 성공한 데 이어, 재학생들 역시 재학 중 각종 수상, 개인전 개최, 방송 출연 등 괄목할 만한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먼저, XR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김하은 학생이,

일부러 30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종이 위에 피어난 천년의 빛'을 주제로 세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작호도(鵠虎圖)를 띄워 올린 '케데헨' 등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 속에서 우리 민화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전시는, 특히 운미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SNS 활용법을 통해 직접 대중과 소통하며 홍보에 나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21학년 조순희(예명: 진현) 동문이 전국노래자랑 초대가수 발탁됐다.

지난해 졸업한 조순희 동문은 가수로서의 활동 반경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익산시 섬유명장 1호이자 기업 대표였던 그는 미네르바학부에서 문화콘텐츠를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키웠다. 최근 인기 프로그램 '가요무대'에 두 차례 출연했으며, 오는 10월 14일 전주에서 12년 만에 개최되는 KBS '전국노래자랑'에 초대가수로 선정되어 자신의 노래 〈희개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공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가수로 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런 쾌거다.

한편, 전주대 미네르바학부는 '인문+공학' 협력형 평생학습 인재를 양성하고자 문화콘텐츠학과와 기술경영공학과를 통합하여 신설되었으며, 직장인과 성인학습자를 위해 주중 저녁과 주말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오늘 '2025 하반기 JBNU JOB FAIR'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역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위한 대규모 취업박람회인 '2025 하반기 전북대학교 취업박람회(JBNU JOB FAIR)'를 23일 전북대 진수당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주교육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등 글로벌대학30 사업 협회 대학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사에는 DB손해보험, KDB산업은행, LG화학(생명과학사업본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30여 개 국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채용 상담 부스 운영과 함께 채용설명회도 마련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상담을 넘어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아이스크림, 솜사탕, 츄러스, '취업기 원 떡' 등 다양한 무료 간식이 제공돼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고 즐겁게 취업 준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21일까지 도내 22개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군 단위 학교 '약진'... 전북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축구·농구서 우승 차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21일까지 도내 22개 경기장에서 진행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 총 40개 팀, 5,07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으며, 축구·농구·배드민턴·탁구 등 16개 종목에서 열린 경합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군 단위 학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시·군 분리로 운영된 축구 남중부

왕중왕전에서 완주 봉사중이 전주오송중을 1: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고, 남고부에서는 전북유니텍고(정수)가 원광고(익산)를 2:0으로 누르고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시·군 단위 왕중왕전 농구경기에서도 군 단위 학교들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고창 자유중은 점수 평화중을 46:4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무주고는 전주 우석고와 치열한 접전 끝에 48:47 한점차 승리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무주고와 고창 자유중은 대회 최초 농구종목 군 단위 학교 우승의 주역이

됐다.

이들 종목 외에도 16개 종목의 우승 팀은 10월부터 개최 예정인 제18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전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양원 문예체전경과장은 "이번 대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협력과 존중의 가치,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과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자율적이고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청렴 애니메이션 공모 시상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22일 오전 고창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청 2층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애니메이션 공모전 시상 및 기관장 청렴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렴 애니메이션 공모전은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한 청렴문화 확산 프로젝트로 부정청탁 예방을 주제로 AI 어플을 활용해 자유롭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출품작에 대해 함께 평가, 자발적인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여 직원들의 공감을 높였으며, 수상작은 교육지원청 각종 연수 및 청렴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진 교육장 청렴 특강은 '사례로 보는 부정청탁', '청렴한 의사결정을 위한 행동 지침' 등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정청탁 사례를 기반으로 이를 해결하는 올바른 청렴 의사결정을 흥미롭게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희 기자

2025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15명 추가 선발

전북교육청, 내달 16일까지 서류 접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 교육 전문직원 15명을 추가 선발한다.

전북교육청은 '2025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추가 선발 공개전형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하고, 오는 10월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발 분야는 중등 일반분야 14명, 전문분야(영양) 1명, 총 15명이다.

이번 중등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정책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할 역량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일반분야·전문분야 응시를 위한 교육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선발은 내년 3월 1일자 기준 14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김재훈 기자

군산부설초, 제14회 뮤직 페스티벌 성료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서선영)가 지난 19일 국립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제14회 Music Festival'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 국악관현악 공연 및 푸른소리 중창단의 무대를 비롯해 각학년별로 발달 단계에 맞춘 오카리나, 기악 합주, 리코더, 하모니카, 단소, 소금 연주가 더해져 한층 풍성한 무대가 완성되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어머니 니함찬단까지 무대에 올라 교육공동체로서의 단합과 열정을 보여주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됐다. 다채로운 무대에 이루어진 공연은 군산부설초등학교 예술영재교육의 결실을 보여주는 뜻깊은 순간으로 남았다.

서선영 교장은 "이번 뮤직페스티벌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였다"고 전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학생에게 확대·지원

전북교육청, 복지부와 협의... 보편적 지원 이달 중 4330여명에 2억5390만원 지원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를 모든 학생에게 확대·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등의 초등학교 8,449명에게 4억9,945만원의 졸업앨범비를 이미 지원했고, 소규모학교 학생 1,233명에게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 외 미지원 학생 4,332명에 대해 2억5,390만원을 9월 중 추가 지원하면 도내 모든 초등학교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이 완료된다.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는 학생 1인당 8만원 이내의 학교별 앨범 계약단가 금액으로 학교에 교부되며, 학생에게는 협물로 지급된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

에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한정해 2024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은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난 5월 말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는 연도 중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일부는 학교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학교 감염병 대응력 강화

전북교육청, 내달 말까지 대응 모의 훈련... 실제 상황 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염병 상황 발생시 학교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 훈련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의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기관의 감염병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먼저, 22일과 오는 29일에는 전북대 학교 간호대학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지역 대표 교사,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 사전 연수와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사전 연수는 예방접종 기반 감염병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설정한 위기관리 시나리오 훈련을 포함하는 이

론과 실습 병행 연수로 운영된다.

이후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실습형 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단위 훈련은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구성원 간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 요령을 종합적으로 익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강양원 문예체전경과장은 "감염병은 예의 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소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 현장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각급 학교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학사 운영과 학생 건강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